



# 육우농가의 소리



**박종신**  
경기육우회장

“제가 71년도부터 소를 길렀기 때문에 그당시 소값, 쇠고기값, 인건비, 쌀값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쇠고기 1근 700원 내외, 비육소 20만원내외, 목부월급 5000원정도, 쌀한가마 500원정도, 서민주택 300~400만원 정도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쇠고기 600g 한근 8,500원, 비육소 220만원이라고 하면 11~12배 올랐습니다. 그러나 목부월급 및 잡지급은 100만원에도 구하기가 힘든 형편이면 200배가 올랐습니다. 집값은 100배정도, 땅값은 1000배이상 오른 곳도 많습니다. 이종곡가제를 써가며 철저하게 관리하여 가장 적게 오른쌀 값도 현시세 120,000원이면 24배나 올랐습니다. ”

옛부터 소 하면 농촌의 뿌리요, 고향이요, 향수로써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소는 우리 농촌 살림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재산 목록 제1호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논, 밭을 갈고 화물을 운송하는 역우로서 자녀교육과 결혼, 분가에 이르기 까지 가정대소사에 필요한 자금마련과 또 전답과 임야를 장만하는 재원으로서는 뿐만 아니라 명절때나 한두번 맛볼수 있는 아주귀한 단백질 식품으로서 그 값어치야 말로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재산 목록이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귀중한 전통의 한우가 경운기에 밀려나고 화물차에 밀려나 역우로서의 값어치를 상실하고 도입소, 수입육에 밀려 우리의 입맛을 바꾸어 놓으며 생산기반마저 뿌리채 흔들리는 서글픈 처지에 놓이게 됨을 비육농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업화 정책에 희생된 농민들이 그 보복으로 농산물 개방 압력이라고 무자비한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 맞고 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우와좌왕 방황하는 현실에서 한우의 생산기반마저 흔들리게 됨은 곧 농민의 한가닥 희망과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비육농민들은 우리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비육 분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그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발버둥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1)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불공정거래는 근절 되어야만 합니다.

요즈음 주부들 사이에는 수입육을 속지않고 잘 사먹는 주부는 현명한 주부요 한우고기를 잘못사먹는 주부는 어리석은 주부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쇠고기를 수입하는것을 탓하려는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르는 소값이 올라가는것만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국이 소자급기반을 위하여 발표한 자급율 60%를 지켜주고 40%의 수입육으로 부족분을 수급조절하고 국내 쇠고기 값에 맞추어 적당한 값으로 방출하여 소비자들의 입맛에 따라, 주머니 사정에따라 속지 않고 올바르게 사먹을 수 있다면 그 누가 탓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대량소비처인 음식점에서 팔고있는 쇠고기 음식은 거의가 수입육이요 정육점에서 한우라고 팔고있는 쇠고기 또한 "양두 구육"이란 말입니다.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하겠다는 명분으로 과다하게 들여와 싸게 무제한 방출하고 있는 수입쇠고기는 엉뚱한 일부 상인의 배만 채우고 소비자는 우롱당하고 한우는 불신당하고 농민만 울리는 현실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소지육 가격은 kg 당 노폐우 3,000~4,000원대에서 부터 한우최고 10,000원대까지 품종에 따라 육질에 따라 다양한 가격으로 경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먹

을 때는 그 품종 육질에 관계 없이 거의 비슷한 값에 사먹고 있습니다. 또 전국 대도시에 축산물 도매시장을 개선하여 경매제도를 도입한것도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도축장의 뿌리 깊고 고질적인 각종비리와 부산물 티켓의 불법적인 프리미엄등 불합리한 운영 때문에 도매시장이 고기소값을 주도해 나가지 못하고 수입육, 도입소, 폐소의 판매장으로 전락하여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육 농가는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것을 기피하고 산지에서 전근대적인 방법인 눈짐작으로 매매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어찌하여 각기 다른 품종을 다른 값에 구입하여 한우값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판매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불공정거래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다 우롱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의사회 구현과 신용사회 실현차원에서 마땅히 근절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단속은 하지 않고 방임내지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물가 당국이 쇠고기의 최고 값이 오르는것을 염려하여 단속을 기피하고, 정육점에서는 한우는 전시용으로 하고 찐소를 구입하여 한우값에 팔아 부당한 이익을 보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소매가가 구입원가에 따라 적정한 마진에 팔게되면 20%도 안되는 일부 한우 고기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80%이상의 쇠고기는 현시세 보다 떨어져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쇠고기의 평균 가격은 오히려 훨씬 싸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축산농가의 피와 땀인 축산진흥기금을 쓸데 없는데 유용하지 말고 전국 곳곳에 대량고기유통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축종, 육질, 부위별로 품질표시를 하여 다양한 가격표시로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도 적당한 값에 입맛과 주머니 사정에 따라 속지 않고 제값에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당국은 국내 쇠고기 자급도를 2000년대까지 60%로 정하여 발표 하였습시다만 그첫해부터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미 쇠고기 협상시 90년도 5,800t, 91년도 6,200t, 92년도 6,600t 수입하기로 협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이미 협상물량의 배에 가까운 115,000t을 수입하겠다고 하니 금년도 소비량을 182,000t으로 추정한다고 하면 60%커녕 37%선이 무너지고 있는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전통의 한우는 그의 절반 18~19%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

2) 정부는 국내산 쇠고기 자급도를 60%로 결정하였습니다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정하여 국민과 약속을 하였으면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그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이 믿고 의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수 있는것입니다. 정부를 불신하면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는것은 당연히 귀결입니다.

정부를 불신하고 시책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나라가 발전하지 못한다는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국은 국내 쇠고기 자급도를 2000년대까지 60%로 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만 그첫해부터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미 쇠고기 협상시 90년도 58,000t, 91년도 62,000t 92년도 66,000t 수입하기로 협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이미 협상물량의 배에 가까운 115,000t을 수입하겠다고 하니 금년도 소비량을 182,000t으로 추정한다고 하면 60%커녕 37%선이 무너지고 있는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전통의 한우는 그의 절반 18~19%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000년대에 가서는 60% 자급커녕 한우는 구경도 할수 없는 시대가 오지 않는다고 그누가 보장한단 말입니까?

3) 소값은 물가상승의 희생양이란 말입니까?

“무제한 방출”여러분 이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혐오스런 말입니까? 물가 당국은 년중 행사처럼 명절때만 되면 무제한 방출을 외치며 농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명절때 수요가 늘어 소, 돼지값이 조금 오르면 대목에 팔아 조상께 정성껏 제사도 올리고 자녀들 설빔도 해주고 친지와 이웃끼리 나누어 먹기도하는 미풍양속을 즐겨왔습니다. 금년도도 다른 물가에 비하여 보합을 이루고 있으나 신정, 구정, 추석 예외 없이 무제한 방출을 되뇌이는통에 명절에 소팔기가 더 힘든것을 느끼셨을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소값이 다른 물가에 비해 얼마나 올랐기에 물가 이야기 만 나오면 소가 매를 맞아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합시다.

제가 71년도부터 소를 길렀기 때문에 그당시 소값, 쇠고기값, 인건비, 쌀값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쇠고기 1근 700원 내외, 비육소 20만원내외, 목부월급 5000원정도, 쌀한가마 500원정도, 서민주택 300~400만원 정도 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쇠고기 600g한근 8,500원, 비육소 220만원이라고 하면 11~12배 올랐습니다. 그러나 목부월급 및 잡지급 100만원에도 구하기가 힘든 형편이면 200배가 올랐습니다. 집값은 100배정

도, 땅값은 1000배이상 오른곳도 많습니다. 이중곡가 제를 써가며 철저하게 관리하여 가장 적게 올른 쌀 값도 현시세 120,000원이면 24배나 올랐습니다.

그이전으로 저슬러 올라가면 농촌에서 농수소 1마리면 문전옥답 한자리 장만했고 아들 딸 시집장가보내고 혼수 장만하고도 송아지 그루테기가 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볼때 소값은 다른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 적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기만 나오면 소가 주변인양 얻어 맞기만하니 채찍 맞으며 묵묵히 일갈하는 동물이라 무제한 방출이란 가혹한 매를 또 맞아야만 합니까? 또 농축산물은 계절에 따라 태풍, 홍수 가뭄등 기후변천에 따라일시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폭락하기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배추가 폭락하여 밭에서 내버리기도 하지만 2,000~3,000원 할때도 있습니다. 지난 몇달간 육계값은 생산원가의 반도 못미치는 400원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83년이후 5년간 소값은 무분별한 소도입으로 인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공공요금이나 공산품은 한번 오르면 떨어질줄 모릅니다. 또 농축산품은 대체식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쌀이 너무 비싸면 잡곡으로, 사과가 너무 비싸면 귤로, 쇠고기가 너무 오르면 돼지고기로 바꾸어 먹어도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품은 대체해서 사용할수 가 없는 것입니다. 호미가 비싸다고 낫이나 장도리로 김을 뿔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와같이 농축산물은 장기적인 수급정책이 바로서 있다면 어떤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은 큰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4) 농정에는 농민의 여론이 반영 되어야 합니다. 바야흐로 힘과 권위주의 시대는 물러가고 민주화시대, 개방화시대, 여론 정치의 시대가 다가 왔습니다. 국정에는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어야하듯 농정에는 농민의 여론이 반영되어야 올바른 민주주의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농민의 여론과 간절한 여

사료, 농기자재 영세율적용문제 ② 소값 안정대 설정문제 ③ 마사회관할권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된것 ④ 농수축산물 수입추천권 박탈된일 ⑤ 자조금제도 법제화지연 등 농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선거때만되면 농민의 자손임을 내세우며 농민을 잘살게 해주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쳐대지만 농민의 최소한의 희망과 소망마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농정을 보살피시는 농정당국자들과 농민을 대표하여 국회에 진출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겠다고 지방의회에 진출하신 지방의원님들, 아직도 30%가 넘는 농민과 그 가족들이 뒤에 있음을 인식하시고 힘없는 민초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축산 정책과 소신있는 농정을 베푸시고 우리 비육농민이 정부를 믿고 의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있도록 하여주시실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비육농민 동지 여러분!

소와같이 미옥스럽게 남이 마다하는 똥을 묻혀가며 농촌의 뿌리인 한우를 열심히 길러 면면히 이어 오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는 앉아서 원망만하고 있을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83년이후 5년간의 혹독한 파동도 견디어 냈습니다.

우리 전통의 한우의 맥을 이어간다는 자부심과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경영합리화에 노력하시고 육질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비육산업기반조성에 이바지 합시다.

그리하여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비육농민의 신뢰와 생산의욕, 온 국민이 우리농축산물을 믿고 애호하는 마음이 한데 어울어져 삼위 일체가 될때만이 농민과 소비자가 다 같이 잘사는 길임을 알아야겠습니다.